

특 하면 음주운전...선수들이 변해야 한다

루카스도 기겁한 연습벌레 정성훈

“좀처럼 쉬질 않아...야구에 미친 사람 같다”



LG 정찬현

취재파일

LG, 정찬현 3개월 출전금지 등 자체 징계 동료·구단에게 치명타...경각심 가져야

LG 정찬현(25)이 2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또 한 번의 현직 프로야구선수 음주 사고다. 구단은 정찬현에게 3개월 출전금지 및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3개월 출전금지지는 사실상 시즌아웃이나 마찬가지다. LG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LG 양상문 감독은 정찬현을 항상 “우리 팀의 미래”라고 칭찬했다.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두드러진 배짱으로 필승조의 한 축을 맡아왔다. 그러나 구단은 사고를 낸 정찬현에게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LG는 징계 수위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수단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LG뿐이 아니다. 지난해 삼성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정형석(24)을 임의탈퇴로 중징계했다.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범죄’다. 자신뿐 아니라 자칫 다른 소중한 목숨도 앓아갈 수 있다. 선수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한때 두산에서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김명제(28)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200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량 아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목뼈 2개가 골절되면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다. 불굴의 의지로

휠체어 테니스선수가 됐지만, 재기하기까지 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선수들의 인식 변화밖에 없다.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도 정작 선수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구단 관계자는 “구장에 나와 있는 순간에는 관리할 수 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며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선수들 스스로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팀 동료들과 구단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음주운전. 선수들의 인식 변화로 다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바란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그는 항상 방향이 틀리고 스윙을 한다. 좀 쉬라고 해도 절대 쉬지 않는다.”

LG 루카스 하벨(30)은 정성훈(35·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정성훈은 팀 동료들도 인정하는 지독한 ‘훈련 벌레’다. 1999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해태에 입단한 이후 17년 동안 단 한 시즌도 쉬지 않았다. 2001시즌(KIA)과 2003시즌(현대)을 제외하고 매 시즌 100경기 이상을 뛰며 3할에 가까운 통산 타율을 기록 중이다. 22일까지 개인통산 1833안타로, 2000안타에 167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성훈이 꾸준히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는 자기관리에 있다. LG 관계자는 “정성훈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수”라며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개인훈련을 시작한다. 후배들에게 야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외국인선수의 눈에도 정성훈은 지독할 정도의 악바리였다. 루카스는 “말 그대로 야구에 ‘미친 사람’ 같다. 구장에 나와 있는 내내 방향이 틀리고 스윙을 한다. 그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라고 말해도 좀처럼 쉬질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우규민(29)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훈은 부상 여파로 경기에 선발출장하지 못하는 날에도 훈련을 쉬지 않는다. “너무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직업이 야구선수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프로의식이 무엇인가를 뽐소 입증하는 베테랑의 모범답안이다. 홍재현 기자



kt에서 NC로 트레이드된 포수 용덕한(왼쪽 3번째)이 23일 마산 KIA전에 앞서 새 동료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NC 다이노스

용덕한이 애뜻한 조범현 감독

■ 스토리 베이스볼

용덕한, 장성우 영입으로 입지 좁아져 NC로 트레이드...1년 안돼 팀 2번 옮겨 조 감독 “더 많이 뛸 수 있는 기회 되길”

kt 조범현 감독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30대 중반이다. 베테랑 포수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5월 2일 장성우(25)가 롯데에서 kt로 트레이드되자, 프로야구 현장은 술렁였다. 그리고

‘용덕한(34)의 프로 12년 백업’이 화제에 올랐다. 데뷔 12년차에 주전 자리를 차지했지만, 초대형 트레이드로 다시 뒤로 물러서게 된 데 따른 안타까움이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감독들은 팀 전체를 냉철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때로는 다른 팀에 가면 당장 핵심전력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묶어두기도 하는 곳이 프로야구다. 그러나 kt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용덕한을 트레이드로 다시 떠나보냈다.

용덕한은 2004년 신인드래프트 2차 8라운드, 전체 54번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전 통의 포수 왕국 두산에서도 수비능력이 뛰어

난 1군 백업 포수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장성우의 군 입대로 든든한 백업 포수가 필요했던 롯데가 러브 콜을 보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고, 2015시즌을 앞두고 신생팀 kt가 20인 보호선수와 특별지명으로 영입했다.

kt 입장에서 총 10억원(특별지명에 따른 이적료)을 투자한 결정이었다. KBO리그 기존 9개 팀 중 SK와 두산 등 몇몇 구단을 제외하면 백업 포수 중에서 용덕한이 가장 앞선다는 객관적 평가의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포수 부문의 대가 조범현 감독이 사령관인 팀의 선택이었기에 더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kt는 대형 트레이드로 장성우를 품었고, 그에 앞서 공격력이 뛰어난 포수 윤요섭까지 데려왔다. 장기적 시각으로 키우고 있는 유망주 윤도경과 이해창도 있다. 용덕한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수비력이 강점이지만, 1군 엔트리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현실에 직면했다. 또 팀은 1군이 아닌 퓨처스에선 베테랑보다 유망주에게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쌓게 하는 것을 바란다. 결국 21일 NC와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용덕한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결정이었다. NC로서 백업 포수도 급했고, 주전 김태균(26)은 아직 방역을 마치지 못했다.

조 감독은 “선수 본인은 1년도 되지 않아 팀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성우 영입 이후 계속 고민했다. (용덕한이) 이제 나이에 있는데, 더 많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고민하지 않았다. 부상 없이 오래도록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빅 마우스

● 자기들이 다 아니까 굳이 뭐... (LG 양상문 감독, 불결한 정찬현이 음주운전으로 자체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선수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미팅은 하지 않았다)

● 불러만 온다면 우린 적극 환영이지. (kt 조범현 감독,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에 장래성 있는 선수들도 대거 발탁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 피가 혼탁해지는 직업이야. (NC 김경문 감독, 감독은 순간 울컥할 때도 참아야 하는 자리라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다)

● 타격감 올라올 때 왼손 상대하면 다시 뚝 떨어집니다. (베전 열경엽 감독, 서건창을 선발라인업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왼손투수에 약한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Korean Pub chungdam jumak

청담주막

NAVER **청담주막** 검색

www.chungdamjumak.com

전문셰프가 운영하는 요리주점 “청담주막”

“지친 하루 로맨틱하게 한잔!!!” ~~~

이런저런 사람사는 이야기~사랑이야기~친구이야기~모든 인생수업을 청담주막에서~~~

청담주막 성공노하우 비법공개

- 하네** 누구나 손쉽게 운영가능 고수익창출
- 두울** 창업비용의 최소화로 실속창업
- 세엣** 차별화된 요리로 중독성 강한메뉴
- 네엣** 주방인력 파견으로 주방 고민해결
- 다섯** 실시간 신메뉴 개발 경쟁력 강화

본사 전문 인력이 전문 점포 선정에서 오르기까지 이렇게 지원합니다!

- 오픈전** 상권선정, 적성검사 등 최적의 상황에 맞게 지원 및 오픈 전문인력과 조리 전문인력이 나와 11 현장교육과 오픈지원
- 오픈시** 담당 슈퍼바이저와 함께 하는 오픈으로 두려움 없이 정상적인 영입이 당일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 오픈후** 조리전문 인력 및 가맹점 운영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매출증대와 창업주님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림

- ★ 청담 가족 : 안성점, 송탄점, 용담점, 중암점, 상봉점, 석계역직영점
- ★ 오픈예정점 : 오산점, 상계점, 신천점

청담주막으로 성공신화의 꿈을 함께 이루세요!

(주)가온누리푸드

창업문의 070-4656-6283